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5, Vol. 12, No. 3, 407-436

학업중단위기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관 연구

서 영 석† 이 은 정 김 재 훈
박 성 화 최 유 리 최 정 윤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ratochwill과 Stoiber(2002)의 근거기반 개입 기준과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해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11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논문에서 프로그램의 경험적 근거는 제시하였으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집단에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한 연구는 1편에 불과했고, 모든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준거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어떤 요소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학업중단,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근거 기반 개입, 개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www.kci.go.kr

교육부 학업중단 현황조사(201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업중단률은 전체 재적학생수 대비 1.06%, 1.01%, 0.93%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업중단숙려제 시행 등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학업중단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과 공식적 통계에 추산되지 않는 학교밖청소년은 학령기 아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8만명 정도로 추정된다(윤철경, 김신영, 유성렬, 임지연, 2013).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학교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이후 비행화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사회적 낙인과 편견,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게임중독과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또한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소득과 고용에서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선, 이상준, 2009).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8,142만원의 순수생애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남기곤, 2011),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의 생애 가치는 총 9,724만원으로 추정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이처럼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의 손실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이후 학업에 복귀하더라도 재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학업 지속 성공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예를 들면, 학습의욕 부족과 무기력함, 나태함, 불규칙적인 생활 등 학업중단 당시의 내외적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학업에 복귀할 경우(김상현, 양정호, 2014), 그리고 학업중단의 주요한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중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김신영, 정경은, 2014; 최동선, 이상준, 2009).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복귀와 재적응을 조력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2014년도부터 '학업중단숙려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2주 이상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숙려기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력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예,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김은옥, 2008; 류남애, 2014; 양경화, 2006; 윤미경, 2002; 이상경, 2012; 이정하, 2006; 전효경, 2002;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2004; 허은하, 2003). 그러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존에 개발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흐름에 맞춰, 그동안 개발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들을 개관하고 이를 토

www.kci.go.kr

대로 향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때, 이론 또는 관점을 기반으로 연구들을 개관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Bem, 1995; Sternberg, 1991)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메타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미국심리학회(APA Publications and Communications Board Working Group on Journal Article Reporting Standards, 2008)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 즉 Kratochwill와 Stoiber(2002)의 근거기반 개입(Evidence-Based Intervention: EBI)과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해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들을 분석, 평가하였다. 근거기반 개입(EBI)은 연구와 실제 현장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데 초점을 둔 과학자-실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다(Kratochwill & Shernoff, 2004; White & Kratochwill, 2005). 한편,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기존 교육과정 개발모형 및 수업설계 모형 등에 기초한 변창진(1994)의 프로그램 개발모형과 교육공학에 기초한 체계적 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한 박인우(1995)의 모형, 그리고 이론적 연구과정과 경험적 타당화 과정이 통합될 수 있도록 6단계 모형으로 제시한 Sussman(2001)의 모형을 참고해서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제시한 것으로(김창대 등, 2011; 박은민, 김봉환, 2009), 실제 개발과정에 가까운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EBI의 초점(연구와 실제를 연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개관연구를 통해 학업중단위기청소년을 조력하는 교사 및 상담사 등 현장실무자들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증진될 뿐 아니라,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시 고려해야 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위기청소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률이 감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 방법

프로그램 선정

개관 대상 프로그램들을 찾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학술정보원, 국내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연구출판물을 검색하였다. 또한 이렇게 검색한 논문들의 참고문헌들

www.kci.go.kr

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색엔진 및 관련 자료들을 탐색할 때 '학업중단(잠재적 학업중단, 학업중단 예방)', '중도탈락(잠재적 중도탈락, 중도탈락 예방)', '중퇴', '학교 떠나기', '등교거부',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을 주제어로 설정하였다. '중도탈락'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윤미경, 2002),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중도탈락 또는 중도탈락 예방이 잠재적 학업중단 또는 학업중단 예방과 연결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중도탈락을 검색 주제어에 포함시켰다. '등교거부'는 반복될 경우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법정 수업일수 등 출결과 관련된 등교거부는 학업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등교거부 행동이 나타나는 초기에 적절히 개입할 경우 학업중단 등 2차적인 위기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류남애,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등교거부를 검색 주제어에 포함시켰다. 한편, 교육부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중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5,016명(82.3%)이었고,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 14,278명 중 7,007명(49.1%), 초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15,908명 중 2,406명(15.1%)이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학교부적응'이란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나 욕구불만으로 인해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지 않거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도탈락 또는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은옥, 2008; 전효경,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을 다룬 프로그램들 또한 검색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어를 사용해서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검색하였다. 우선, 논문제목과 초록을 토대로 117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는데, 이 중 동일 저자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정책연구논문인 경우 등 54개(46.2%)를 제외하고 63개(53.8%)의 논문을 2차로 선별하였다. 이 중 5개의 논문을 임의로 선정한 후, 프로그램 선별기준('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두고 새로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함')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선별기준에 대한 연구자간 합의가 100%에 이른 다음, 나머지 58개의 논문을 6개 집단으로 나누어 이후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총 5명의 연구자들이 선별작업에 참여하였는데, 3명씩 한 조로 편성하였다. 연구자의 조합이 검토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조는 동일한 짝을 이루지 않도록 A-B-E, A-C-E, A-D-E, B-C-E, B-D-E, C-D-E로 구성하였으며, 배정된 논문에 대해 연구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같은 조에 속한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조원들 뿐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고, 그 결과 52개의 논문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선발에서 제외된 52개의 논문 중 '학교부적응' 관련 논문(26개, 50%)이 가장 많았는데, 이 논문들은 단순히 학교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예방 또는 감소와 관련성이 적었다. 선별에서 제외된 나머지 논문들은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매뉴얼만 제시

www.kci.go.kr

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코딩기준을 토대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1개 논문 역시 최종 선별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11개의 논문을 선별하였다(표 1 참조).

프로그램 코딩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 개입 특별위원회(EBI: Evidence-Based Intervention Task Force)가

표 1.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관 대상 연구

no.	저자	연도	연구 제목	출판유형	대상	운영방식
1	류남애	2014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자용 단기 개입모형의 개발 및 적용	박사 학위논문	고등학생	개인
2	이상경	2012	놀이를 통한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아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	집단
3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상담기관 연구보고서	중·고등학생	개인/모듈
4	김은옥*	2008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학교적응력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 학위논문	중학생	집단
5	양경화	2006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박사 학위논문	중·고등학생	집단
6	이정하	2006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	혼용(개인/집단)
7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20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보고서	청소년 상담기관 연구보고서	중·고등학생	집단
8	허은하	2003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인지·정서·행동 모델을 적용하여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	집단
9	윤미경	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박사 학위논문	고등학생	집단
10	전효경	2002	학교적응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및 학습내적통제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중학생	집단
11	홍혜영, 소수연	2001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상담기관 연구보고서	중·고등학생	집단

* 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됨.

www.kci.go.kr

제안한 코딩기준(Kratochwill & Stoiber, 2002)과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기준들을 적용해서 선별된 프로그램들을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학교심리분과와 학교심리학연구회(the Society for the Study of School Psychology, SSSP)가 후원한 '학교심리 근거기반 개입 특별위원회'(the Task Force on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n School Psychology)는 1999년 조직되어 3년간 활동하면서, 학교심리학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다양한 유형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근거들을 검토하고 문서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추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Kratochwill & Stoiber, 2002). 이 매뉴얼과 평가기준(이하 EBI 기준)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좋은 연구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발 운영된 프로그램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Carlson & Christenson, 2005).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매뉴얼과 기준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면 개입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연구와 학교현장 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Lewis-Snyder, Stoiber, & Kratochwill, 2002; Kratochwill & Shernoff, 2004).

EBI 기준은 크게 프로그램의 기본 특성, 핵심 특징, 기타 보충 기준 등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 특성'은 프로그램의 경험적·이론적 근거, 설계 특성, 통계분석 등을 포함하고, 프로그램의 '핵심 특징'은 측정 절차, 비교집단의 질, 실행충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요 결과, 효과의 지속성,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 구성요소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충 기준'은 연구의 외적타당도, 프로그램 실행자, 훈련 등을 평가하고 기술한다. 지금까지 EBI 기준은 품행장애 아동의 대인 유능성 증진을 위한 '가족과 학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Program: Fast Track)의 효과 평가(Lewis-Snyder et al., 2002),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 자살방지 프로그램 평가(Miller, Eckert, & Mazza, 2009),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관 연구(Lehr, Hanson, Sinclair, & Christenson, 2003; Prevatt & Kelly, 2003), 읽기능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평가 연구(Vasquez & Slocum, 2012) 등에 활용되어 왔고,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BI 기준이 우리나라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EBI 기준은 주로 연구 설계와 방법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자들은 EBI 기준이 프로그램의 타당성이나 효과검증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학업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EBI 기준과 함께 김창대 등(2011)이 제시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기준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 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참여자와 그들이 속한 조직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www.kci.go.kr

(김창대 등, 2011),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생 및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전문가로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코딩기준에 대한 정확하고 일치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EBI 기준과 김창대 등(2011)의 기준을 설명하고 적용한 도서와 논문들을 검토하였고, 프로그램 평가 및 방법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과 지도를 구하였다. 본격적인 코딩을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3개 프로그램에 대한 모의 코딩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코딩기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료해졌고 연구자들 간에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나머지 8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두 개 조로 나뉘어서 코딩을 진행하였다. 각 연구자가 자신의 조에 배정된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1차 코딩을 하였다. 1차 코딩 결과 조원들과 합의과정에서 불일치한 부분이 발생하면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고, 평정자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코딩기준에 대한 연구자간 이해의 차이를 좁혔으며, 이후 각 연구자가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1차 코딩 시 87.6%, 연구자간 논의를 거쳐 합의한 후 평정자간 일치도(2차)는 98.7%이었다. 이후,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다면평가, 변화촉진자에 대한 상쇄균형화, 낮은 이탈, 매뉴얼화 등에 대해서는 100%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프로그램 개관

전체 11개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물로 출판되었고, 이 중 8개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프로그램, 3개는 청소년상담기관(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특별시 및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었으며, 학위논문과 청소년상담기관 연구보고서가 각각 1편씩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2개,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5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4개였다. 운영방식은 집단상담 8개, 개인상담 2개, 그리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혼용한 프로그램은 1개였다. 한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해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도 1개 있었다. 개관 대상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코딩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코딩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모형과 Kratochwill과 Stoiber(2002)의 근거기반 개입(EBI) 기준을 적용해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토대로 요구분석, 전문가 검증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EBI 기준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의 기본 특성, 핵심 특징, 기타 보충 기준 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표 2에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자 및 연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를 무선으로 배치하였으며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분석결과를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석 결과

요구분석

'요구분석'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관련 대상자와 지역사회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및 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창대 등, 2011). 잠재적 프로그램 대상자와 관련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요구분석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김창대 등, 201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1개 프로그램 중 4개(36.4%)만이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요구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분석의 대상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연구 e, h)와 프로그램 사용자(지도자)에게 실시한 경우(연구 i, k)로 분류되었으며, 프로그램 대상자와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없었다. 요구분석은 설문지(연구 e, h), 포커스그룹 인터뷰(연구 i), 설문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혼합방식(연구 k)을 사용해서 진행되었다.

전문가 검증

'전문가 검증'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의 타당성이나 현장 적용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피드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다(박인우, 1995; 오현경, 2012).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5개(45.5%) 프로그램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개(54.5%)는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기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문을 구한 대상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실무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현장전문가로 분류되었는데, 학계 전문가에게는 주로 프로그램의 내용타당성에 대해, 현장전문가에게는 프로그램의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5개 프로그램 중 학계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모두에게서 자문을 받은 경우는 3건이었다. 한편, 프로그램마다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시기가 조금씩 달랐는데, 대부분은 예비모형을 구안한 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연구 c, h, i). 또한 프로그램의 구안단계와 적용단계에서 각각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한 경우(연구 k)와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시로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과정에 반영한 경우(연구 e)도 있었다.

근거 기반 개입 분석 결과

'프로그램 기본 특성'

EBI 코딩기준의 첫 번째 영역인 '기본 특성(general characteristics)'은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영역은 프로그램의 경험적/이론적 근거, 설계 특성, 통계 분석 등으로 세분된다.

경험적/ 이론적 근거

프로그램의 '경험적/이론적 근거'는 프로그램이 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설명 또는 이유를 의미하는데

www.kci.go.kr

표 2.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분석 결과

영 역 \ 연 구		코딩 선택	{a}	{b}	{c}	{d}	{e}	{f}	{g}	{h}	{i}	{j}	{k}
프로그램 개발													
요구분석		O/X	X	X	X	X	O	X	X	O	O	X	O
전문가 검증		O/X	X	X	O	X	O	X	X	O	O	X	O
프로그램 기본 특성													
근거의 종류	경험적 근거	O/X	O	O	O	O	O	O	O	O	O	O	O
	이론적 근거	O/X	O	X	X	O	X	O	O	X	X	X	O
설계 특성		기술	-	비무선 구획	비무선	-	-	비무선	무선	비무선	-	비무선	-
통계 분석	적절한 분석 단위	O/X	-	O	O	O	-	O	O	O	O	O	O
	실험군 오차율 통제	O/X	-	-	-	-	-	-	-	O	-	-	-
	2종 오류 통제 위한 충분한 샘플 크기	O/X	-	O	O	X	O	O	X	X	O	O	X
프로그램 핵심 특징													
측정		0 1 2 3	-	1	2	3	0	1	2	2	2	2	2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사용 (신뢰도)		O/X	-	O	O	O	X	O	O	O	O	O	O
다중방법		O/X	-	X	O	O	O	X	O	O	O	O	O
다면평가		O/X	-	X	X	O	O	X	O	O	O	O	O
측정에 대한 타당도 제시		O/X	-	X	X	O	X	X	X	X	X	X	X

www.kci.go.kr

표 2.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분석 결과 (계속 1)

영 역 \ 연 구	코딩 선택	{a}	{b}	{c}	{d}	{e}	{f}	{g}	{h}	{i}	{j}	{k}
비교집단	0 1 2 3	-	2	2	0	0	1	1	1	0	2	0
비교집단의 유형	기술	-	무처치	무처치	단일 집단	-	무처치	무처치	무처치	단일 집단	대안적 처치	단일 집단
변화촉진자 상쇄균형화	O/X	-	X	X	-	-	X	X	X	-	X	-
집단동일성	O/X	-	O	O	-	-	O	O	X	-	O	-
동일한 탈락율	O/X	-	O	O	-	-	O	X	O	-	O	-
낮은 이탈	O/X	-	X	O	-	-	O	X	O	-	O	-
실행충실도	0 1 2 3	1	2	1	2	1	2	2	2	2	2	2
수용할 만큼 충실히 따랐다는 증거	O/X	X	O	O	O	O	O	O	O	O	O	O
지속적인 자문	O/X	X	X	X	X	X	X	X	X	X	X	X
개입 회기/ 단원/ 절차 코딩	O/X	X	O	X	O	X	O	O	O	O	O	O
녹음 또는 녹화 실행	O/X	X	X	X	X	X	X	X	X	X	X	X
매뉴얼화	O/X	O	O	O	O	O	O	O	O	O	O	O
상세설명이 포함된 문서 자료	O/X	O	O	O	O	O	O	X	O	O	X	X
상세설명이 포함된 정규교육회기	O/X	X	X	X	X	X	X	X	X	O	X	X
원리와 개요 설명만 포함된 문서자료	O/X	X	X	X	X	X	X	O	X	X	O	O
원리와 개요 설명만 포함된 비정규교육회기	O/X	X	X	X	X	X	X	X	X	X	X	O

www.kci.go.kr

표 2.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분석 결과 (계속 2)

영 역 \ 연 구	코딩 선택	[a]	[b]	[c]	[d]	[e]	[f]	[g]	[h]	[i]	[j]	[k]
유의미한 주요 결과	0 1 2 3	-	1	1	0	0	1	1	1	0	2	0
결과	기술	-	자아존중감[a2] 대인관계 총점 및 하위영역 일부 [a2] 학교적응도[a2] 진로성숙도 태도영역[d]	자아존중감[b] 자기표현[b] 학습내적 통제위[b]	비합리적 개인신념 검사[c] 학교생활 태도검사 점수[b] (그러나 사전사후 차이 p-.05 수준에서[d])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제시)	자기효능감[a2] 자기통제력[a2] 학교 생활태도[a2] (하위영역중3 개[a2]/1개[d]) 장소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e] 일탈정도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e]	표적문제[c] 학교적응 유연성[a2] (하위요인 중 1개[a2]/2개[b,d]) 자기통제력 [a2] 전조증상[c] 8명중5명 중도탈락, 규칙위반 횟수 (통제집단)[b]	학교적응력 변화[a1] 질적평가도 같은 결과 반영	학업중단 의도평균[c3] 학교적응 수준평균[a2] 하위요인 중 1개[b],2개[d]	성취동기 평균[a2] 하위영역 모두[a2] 진로결정 자아효능감 평균[a2] 진로의사 결정유형[d]	4명 복교 등교거부 경향성[a3] 하위척도 중 2개[d]2개[a1] 자퇴생각[a3] 주관적 행복감[a2] 자아존중감[b,d] 자기조절 효능감[b,d] 학교적응수준[a2]
효과 크기	기술	-	0.29	1.33	-1.11 0.72	-	0.56	0.6	4.57	-0.50 0.34	0.35	-1.39 -1.81 1.37 1.00 0.97 1.46
효과의 지속성	0 1 2 3	-	0	0	0	0	0	0	0	0	0	0
결과 초래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0 1 2 3	-	2	2	0	0	2	2	2	0	2	0
프로그램 구성요소	기술	자기이해 상황이해 자기결정 자기성장	자아개념확립 대인관계개선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존중감 /자기표현 학습내적 통제위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력	나를알기 너와 함께하기 가족 사랑하기 학교새로 만나기 미래 설계하기	학생문제에 따른 심리검사 및 상담, 부모교육, 자원봉사, 법원심리 참관	표적문제에 대한 과제수행	학교친구 및 학교교사 학교공부 학교생활	참여동기 강화 의사결정 능력 학업지속 기대향상 외적자원 자기효능감 협력체계 구축	자기이해 교육의 이해 일의이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학생유형에 따른 개인/ 학부모/교사 상담수행
구성요소 측정도구 선정	O/X	-	O	O	O	X	X	X	X	X	X	X

www.kci.go.kr

표 2.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분석 결과 (계속 3)

영 역 \ 연 구	코딩 선택	{a}	{b}	{c}	{d}	{e}	{f}	{g}	{h}	{i}	{j}	{k}
주요결과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요소	기술	-	없음[g]	없음[g]	없음[g]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밝힘	효과검증 하지않음	없음[i]	없음[h]	없음[h]	없음[i]	없음[h]	없음[i]
기타 보충 기준												
참여자선별과정 명시	O/X	-	O	O	O	X	O	O	O	O	O	O
연구자의 관심사와 관련된 준거 명시	O/X	-	O	O	O	O	O	O	O	O	O	O
제외 기준 명시	O/X	-	O	X	X	X	X	X	X	X	X	X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	-	학교급 학년/성별 중도탈락 위험요인	학교급 성별/연령 개인, 가정, 학교, 친구 관련 특성	학교급 성별/연령 학업지속의도 결석일수	학교급	학교급 학년/성별	학교급 학년 출결상태 학교규칙 위반정도	학교급	성별 학교급	학교급 학년/성별 성적 방과후 학습여부	학교급 학년/성별 등교거부 횟수및특징
수용성	기술	-	-	대상자소감	관찰및평가서 추후상담 학교생활태도 설문	참여자 프로그램시 범실시 소감문	관찰지 개별사례 분석	구두평가	경험보고서 관찰내용 프로그램 평가설문지 분석	자기보고형 종합평가지 상담회기 평가지 프로그램 평가회의	경험보고서 관찰기록 만족도 평가지제작	활용소감, 피드백 학생별 사례분석
개입기간	기술	-	11회기, 주1회, 100~120분	8회, 주2회, 3시간	6회, 주2회, 120분	10회, 매주 50분	5회, 3시간	5회, 200분(집단) 5회, 6주(개인)	10회기, 주2회, 50분	평균 3.71회기	10회기, 주2회, 50분	8-11회기
프로그램 실행자	기술	-	기술없음	기술없음	연구자 보조진행자	연구자 /청소년 상담사	기술없음	연구자 보조진행자	기술없음	전문상담 교사	연구자	학교상담자
훈련	기술	-	-	-	-	-	-	-	-	시범운영 지도자교육	-	사전 2회 이상 모임

주. 연구는 무선으로 배치하였고 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함. O/X – 예/아니오, - – 해당사항 없음, 0– 증거 없음, 1– 약한 증거, 2– 가능성 높은(promising) 증거, 3– 강한 증거. a-1– 유의미한 변화 (또는 차이), a-2– 유의미하게 상승(또는 개선, 향상), a-3– 유의미하게 감소, b– 상승(또는 개선, 향상), c– 감소, d– 유의미한 차이 없음, e– 영향 없었음, f– 변화 대상, 요인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음, g– 구성요소와 측정도구명이 1:1 대응하고 구성요소의 변화를 확인하여 주요결과인 중도탈락방지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데 초점, h– 구성요소와 측정도구명이 대응하지 않으나 측정도구의 점수변화를 확인하여 주요결과인 중도탈락방지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데 초점, i– 프로그램 전체 효과성 검증.

www.kci.go.kr

(Lewis-snyder et al., 2002), 구체적으로는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창대 등, 2011). 프로그램의 경험적/이론적 근거를 세움으로써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개념화할 수 있고, 다른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의 충실도(integrity)를 향상시킬 수 있다(Lewis-snyder et al., 200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개관한 11개 프로그램 대부분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프로그램은 5개(45.5%)에 불과하였다(연구 a, d, f, g, k). 이 프로그램들에서는 위기개입(연구 k), 해결중심 단기상담 및 과제중심모델(연구 f, g), 합리적정서행동치료(연구 d), 현실치료 및 의사결정이론(연구 a)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설계 특성

'설계 특성'은 연구참여자를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에 어떻게(무선 또는 비무선) 할당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참여자 할당 방식에 따라 집단동질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당 방식은 결국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성태제, 시기자, 2006). 본 연구에서는 전체 11개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이를 실제 대상에게 실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연구 a)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자 표집 및 할당 방식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연구 e), 비교집단 없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한 경우(연구 d, i, k)를 제외하고 6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할당한 경우는 1개(9.1%)(연구 g),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했으나 무선할당을 하지 않은 경우는 5개(45.5%)(연구 b, c, f, h, j)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분석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1종오류나 2종오류 등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Lewis-snyder et al., 2002). 통계 분석과 관련된 EBI 기준은 세 가지(분석단위, 실험군오차율, 표본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분석단위'는 사용된 통계 분석이 프로그램의 개입 수준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학급 수준에서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학급이 분석 단위가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개인상담으로 진행되었다면 개인이 분석단위가 되어야 한다(Lewis-Snyder et al., 2002). 본 연구에서 개관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분석단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 단위는 크게 집단(연구 b, c, d, f, g, h, j)과 개인(연구 i, k) 단위로 분류되었다. 집단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집단 간 사전사후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NOVA(연구 h), MANCOVA(연구 b, f), *t*-검증(연구 c),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 ranks test)(연구 g), 집단별(실험집단/비교집단) 대응표본 *t*-검증(연구 j) 등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 없이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연구 d)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인상담으로 진행된 경우(연구 i, k)에는 개인별 사전, 사후 점수 평균을 보고하거나(연구 k),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연구 i, k).

'실험군오차율(family-wise error rate)'은 여러

www.kci.go.kr

번 통계검증을 실시했을 때 적어도 한 번 이상 1종오류를 범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자료에 대해 여러 번 통계검증을 실시할 경우 실험군오차율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개관대상 논문 중 단 1편의 논문(연구 h)에서 Bonferroni 교정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군오차율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wis-Snyder 등(2002)은 2종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적정한 표본 크기를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통계검증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 적정한 표본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Gall, Gall과 Borg(2003)는 비교되는 집단마다 최소 15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06에서 재인용).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 집단의 참여자가 15명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표본크기는 4명부터 75명까지 분포하였고, 6개 프로그램(연구 b, c, e, f, i, j)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기본 특성'과 관련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5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비교집단을 설정한 6개의 연구 중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할당한 경우는 1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했으나 무선할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개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관한 프로그램 대부분은 분석단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군오차율을 통제한 연구는 1건에 불과하였고,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40%에 달했다.

'프로그램 핵심 특징'

'핵심 특징(key features)'은 프로그램의 내적 타당도 뿐 아니라 학교/현장 개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특징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측정 절차, 비교집단의 질(quality), 실행충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연구결과의 지속성 확인, 연구결과를 초래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측정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입 결과를 측정한 10편의 논문에 대해 측정 관련 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에 대한 평가는 크게 네 가지 요소(신뢰도, 다중방법, 다면평가,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0~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우선, 10개 논문 중 측정도구의 이름만 나열하고 신뢰도를 보고하지 않은 1편의 논문(연구 e)을 제외한 9개의 논문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방법(multi-method)'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관찰, 자기보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0개 논문 중 2개(연구 b, f)를 제외한 8개의 논문에서 다중방법 평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논문에서는 주로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했는지(다면평가)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 부모, 교사, 관찰자 중 둘 이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논문 중 3개(연구 b, c, f)를 제외한 7개 논문에서 다

www.kci.go.kr

면평가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고, 주로 학생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도자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10개의 논문 중 1개의 논문에서만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측정'이라는 대표항목에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는데(0~3점),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떤 요소도 충족하지 않을 때,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0점, 사용한 도구의 50% 이상이 신뢰도가 .60이상일 때 1점, 측정도구의 50%이상이 신뢰도 .70이상이면서 다중방법 또는 다면평가 중 하나를 사용하였으나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2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75%이상이 신뢰도 .85이상이면서 다중방법과 다면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타당도까지 제시하였을 때 3점을 부여하였다(Lewis-Snyder et al., 2002). 그 결과, 다중방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 1편(연구 e)이 0점을 받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제시되었으나 다중방법, 다면평가를 모두 실시하지 않은 논문 두 편(연구 b, f)이 1점, 다중방법 또는 다면평가 중 하나를 실시하였거나 다중방법과 다면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측정도구의 75%이상이 신뢰도 .85에 미치지 못한 논문 6편은 2점, 다중방법과 다면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 역시 보고한 1편의 논문이 3점을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비교집단

많은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 및 통제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데, 이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허균, 2010). 본 연구에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한 4편(연구 d, e, i, k)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였고,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집단과 비교한 논문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기준은 비교집단 유형, 변화촉진자에 대한 상쇄균형화(counterbalancing of change agents), 집단동일성(group equivalency), 동일한 탈락률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예' 또는 '아니오'로 평정한다. 우선 비교집단의 유형이 무처치, 대안적 처치와 약물치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비교집단을 설정한 6편의 논문 중 5편은 비교집단에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고, 나머지 논문의 경우 비교집단에 다른 진로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BI 매뉴얼에서는 교사나 연구자 등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변화촉진자)이 집단마다 동일할 것을 강조하는데, 만일 다를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Lewis-Snyder et al., 2002).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동일 교사 또는 연구자가 진행하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실행자 변인을 따로 설정해서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변화촉진자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비교집단을 설정한 6편의 논문 중 엄격한 의미의 상쇄균형화를 시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편의 논문(연구 b, f, g, h)에서는 비교집단에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고, 연구 c는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비교집단에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촉진자에 대한 상쇄균형화를 실시하지 않

www.kci.go.kr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 j의 경우 비교집단에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누가 진행했는지에 대한 기술과 관련 통계분석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상쇄균형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집단동일성'(group equivalency)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인구사회학적 특징,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참여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할당함으로써 집단동일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무선할당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거나,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집단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설정한 6편의 논문 중 5편의 논문에서 집단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연구 g는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무선할당하였고, 연구 f는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3편(연구 b, c, j)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사를 통해 두 집단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탈락률'은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락자의 비율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동일한지를 의미한다. 실험집단의 중도탈락률이 높을 경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탈락률이 확연히 다를 경우 집단이 더 이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비교를 통한 결과추론이 무의미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설정한 6편의 논문 중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중도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논문은 4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b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에서 중도탈락이 많이 발생했고, 연구 g의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참여자의 중도탈락이 많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두 집단에서의 탈락률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충실도

'실행충실도'는 내적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써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대로 충실히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Lewis-Snyder et al., 2002). 이 기준은 '수용할 만큼 충실히 따랐다는 증거'와 '매뉴얼화' 두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할 만큼 충실히 따랐다는 증거(evidence of acceptable adherence)' 항목은,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했는지, 개입회기나 절차를 기록했는지, 녹음이나 녹화를 실행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매뉴얼화' 항목은 개입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문서화된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 녹음 또는 녹화되었고, 프로그램의 회기별 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을 받고 문서화된 매뉴얼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인 3점을 부여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이나 회기별 과정에 대한 서술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매뉴얼이 있을 경우에는 2점, 모든 조건 중 한 가지만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1점,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Lewis-snyder et al., 2002). 11개의 논문 중 8개 논문(연구 b, d, f, g, h, i, j, k)의 경우, 프로그

www.kci.go.kr

램 진행 중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한 과정을 기록하였고 대략적인 매뉴얼에 대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2점을 부여하였다. 나머지 3개 논문의 경우(연구 a, c, e), 개입회기나 단원, 절차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프로그램 회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매뉴얼이 존재해서 1점을 부여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했다고 보고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주요 결과

'유의미한 주요 결과'란 정책 입안자, 실무자 또는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연구결과를 의미한다(Lewis-snyder et al., 2002). 즉, 상위 항목을 통해 평정했던 프로그램 평가나 측정의 적절성, 비교집단 사용 여부, 실행 충실도를 바탕으로 어떤 집단에서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개입이 얼마나 타당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나 한계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해, 사용한 통계분석이 적절하고, 측정, 비교집단, 실행충실도에서 3점으로 평정되었으며, 주요 결과에서 75% 이상이 변화하였을 경우 본 항목에서도 3점을 부여한다. 같은 항목에서 2점을 획득하고 주요 결과의 50% 이상이 변화하였을 경우 2점, 같은 항목에서 모두 1점 이상을 획득하고 주요 결과의 25%가 변화하였을 경우 1점을 얻게 된다(Lewis-Snyder et al., 2002).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개 논문이 적절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비교집단, 실행충실도의 항목들에서 최소 1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결과의 25% 이상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본 항목의 점수 역시 1점으로 평정되었다(연구 b, c, f, g, h,). 한편, 연구 j의 경우 적절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측정, 비교집단, 실행충실도 항목에서 모두 2점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 유일하게 2점을 획득하였다(9.1%). 나머지 4개 논문에서는 적절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고, 측정, 실행충실도 등의 항목에서 1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0점으로 평정되었다(연구 d, e, i, k).

한편, EBI 기준에 따르면 의미 있는 주요결과의 하위항목에 효과크기(effect size)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효과크기는 집단 간 차이 또는 동일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데(박은혜, 2014),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비교가 가능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Coe, 2002). 최근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3)에서는 독자들이 연구결과의 규모 또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결과 부분에 효과크기를 보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체 개관 대상 논문 중에서 효과크기를 보고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각 논문에서 보고한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등을 토대로 효과크기를 직접 계산하였다. 효과크기는 집단 간 차이의 표준화된 측정치로서(Cohen's *d*)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d = 평균 차이($M1$-$M2$) / 통합 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

www.kci.go.kr

본 연구에서는 GPower 3.1을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Cohen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는데, 효과크기가 0.2일 경우 작은 효과, 0.5일 경우 중간 정도의 효과, 그리고 0.8 이상인 경우 큰 효과로 해석하였다(Cohen, 2013). 전체 11개 논문 중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6개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계산한 결과, 2개는 작은 효과(0.29～0.35), 2개는 중간 정도의 효과(0.56～0.60), 나머지 2개는 큰 효과크기(1.33～4.57)를 나타냈다.

효과의 지속성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뿐 아니라 효과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평가의 주요 요소이다(Lewis-Snyder et al., 2002). 11편의 논문에 대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는데, 이는 동일한 참여자들에게 추수검사(follow-up)를 시행하지 않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초래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연구자가 어떤 요소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어떤 요소로 인해 참여자의 표적행동이 변하고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를 위해 EBI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도구 선정', '주요결과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요소'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프로그램의 목표나 표적행동(예, 중도탈락방지)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에 구성한 주요요소를 의미하며,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도구 선정'은 측정도구를 선정해서 각각의 구성요소를 측정했는지를 의미하고, '주요결과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요소'란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주요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우선, 11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크게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5개 범주는 '자아와 관련된 요소'(예, 자기이해, 자기성장, 자기효능감 향상, 자아개념의 확립, 자아존중감/자기표현), '진로와 관련된 요소'(예, 미래설계하기, 의사결정능력향상, 일의 이해,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진로성숙도),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소'(예, 가족 사랑하기, 대인관계 개선, 학교 친구 및 학교교사), '학습 및 학교 관련 요소'(예, 학교공부, 학교생활, 학교 새로 만나기, 학교생활적응, 학습내적통제, 학업지속에 대한 기대향상), '기타'(상담프로그램 참여 동기 강화, 부모교육, 역할놀이)로 구성된다. 이 중 기타 범주를 제외한 4개 범주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개(연구 a, b, e, j), 3개 범주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들을 갖춘 프로그램은 1개(연구 i), 2개 범주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은 3개(연구 c, g, h)였다. 나머지 3개 논문들은 기타 범주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연구 d, f, k).

다음으로, 각각의 구성요소를 측정도구로 측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논문은 3개(연구 b, c, d)였고, 나머지 8개 논문에서는 구성요소와 측정도구가 1:1로 대응되지 않아 연구자가 선정한 구성요소를 제대로 측정했는지가 불분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구성요소가 주요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주요 결과와 관련된 구성요소' 항목의 경우,

www.kci.go.kr

모든 논문에서 특정 구성요소와 준거변인인 학업중단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편의 논문(연구 b, c, d)에서는 프로그램 개입 이후에 구성요소 점수가 변하였고 프로그램의 준거변인인 중도탈락 관련 점수가 감소함으로써, 구성요소와 준거변인 간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핵심 특징'과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나 타당도를 보고한 연구는 1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비교집단을 설정한 6건의 연구 중 5건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동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1건의 연구에서만 비교집단에 대안적 처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효과크기를 보고하거나 프로그램 종결 후 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한 경우는 없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준거변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어떤 구성요소가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보충 기준'

외적타당도

'외적타당도' 항목은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연구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선별과정을 명시하였는지, 선별 및 제외기준을 명시하였는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서술했는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수용하였는지, 개입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한다. 우선, 10개 논문에서 참여자 선별과정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논문에서 학교 내 부적응 또는 중도탈락의 전조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별했음을 명시하였고, 8편의 논문에서는 성별, 학교급, 학년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또한 5개 논문에서 참여자의 소감문이나 평가지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프로그램 수용도를 확인하였는데(연구 c, g, h, i, j), 만족도와 관련된 평가지를 제작하여 참여자의 수용도를 확인하거나(연구 i, j), 참여자마다 표적 문제와 프로그램 이후의 변화사항을 상술한 경우도 있었고(연구 g), 집단원의 경험보고서와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뿐 아니라 상담자의 관찰 내용을 서술하고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연구 h). 개입기간은 2주에서 3개월로 다양하였으며, 8개의 논문에서 6-11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한 회기는 50분에서 200분까지 진행하였다. 5일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캠프형식으로 구성하거나(연구 f), 모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례에 따라 회기수와 시간이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연구 i).

프로그램 실행자/훈련

'프로그램 실행자'는 연구자, 교사, 교육보조자 등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을 의미하고, '훈련'은 프로그램 실행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를 논문에 서술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실행자는 연구자와 보조진행자 1~2명이 실시한 경우(연구 d, g), 보조진행자 없이 연구자만 참여한 경우(연구 h, j), 1차 실행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실시하고 2차 실행은 청소년상담사가 진행한 경우(연구 e),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한 경우(연구 i, k) 등 다양했다. 프로그램 실행자

www.kci.go.kr

에 대한 훈련은, 연구진이 전문상담교사에게 시범운영지도자 교육을 직접 실시했거나(연구 i), 3명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2회 이상의 사전면담을 실시하였다(연구 k).

'기타 보충기준'과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참여자 선별과정, 참여자의 특성, 개입기간 등을 보고하였으며, 참여자의 소감문, 평가설문지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수용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2개 연구에서 연구자가 아닌 전문상담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연구자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사전교육 또는 사전면담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위기청소년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요구분석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이론적 근거 제시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우선, 11개 연구 중 4개(36.4%) 연구에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고, 5개(45.5%) 연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잠재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및 구성요소, 표적 집단에 최적화된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가능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구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핵심적인 요소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핵심적인 내용과 무관하거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절차가 프로그램에 포함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낮추고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요구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들의 효과크기(절대값 = 0.29-1.11)는 요구조사와 자문을 실시한 연구들의 효과크기(절대값 = 0.50-4.57)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구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프로그램 개발 근거로 제시한 반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5편에 불과하였다. 이는 16편의 학업중단 프로그램을 개관한 Prevatt과 Kelly(2003)의 연구에서 93.8%(15편)의 논문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근거가 되는 이론을 제시한 논문은 18.8%(3편)에 불과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프로그램이 어떤 기제를 통해 변화를 야기하는지, 즉 구성요소 및 활동이 어떤 이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해준다(Lewis-snyder et al., 2002). 달리 말하면, 이론적 근거 없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www.kci.go.kr

'왜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우연히 발생한 일회적인 결과라고 비판받기 쉽다.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근거 없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는, 관련 선행연구와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있을 뿐 왜 선행연구와 유사한지, 차이점이 발생했다면 차이점 발생 이유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지식기반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런 방식의 논의 전개는 관련 분야의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정련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도 확신을 주기 어렵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또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기존 지식체계에 흡수되어 후속연구나 임상실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11개 논문 중 4개의 논문에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함께 비교집단(대안적 처치, 무처치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Prevatt & Kelly, 2003).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결과만 비교할 경우, 준거변인의 변화가 실제로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외변인(성숙, 검사효과 등) 때문에 초래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연구의 내적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 4편의 논문에서도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것을 실험설계상의 한계점으로 보고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적절한 통제나 처치를 가한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학업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비교집단을 설정한 6개의 논문 중 단 1편만이 비교집단에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머지 5개 논문은 비교집단에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는데, 실험설계상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기존의 다른 개입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기대했던 방향으로 변화를 야기할 경우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처치 비교집단 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해서 실험집단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집단에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교집단에는 개인적인 특징이나 상황적인 측면에서 실험집단에 포함된 참여자들과 매우 유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교집단에 대안적인 처치를 가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들의 문제가 악화되거나 연구 참여에 따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프로그램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무처치 통제집단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비교집단에도 실험집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처음부터 비교집단에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이는 참여자들이 어떠한 조력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관 대상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비교집단을 설정한 6편의 논문 중 30%(n = 2)가 넘는 논문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많은 수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도탈락자

www.kci.go.kr

와 프로그램 종결까지 남아있는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자료 분석 및 연구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Prevatt & Kelly, 2003), 2편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자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인 특성을 지닌 학업중단 프로그램에서 많은 수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특히 집단에 따라 탈락률이 다르다면, 연구의 내적타당도가 훼손되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추후 학업중단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무선할당 등을 통해 집단동일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개별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통해 많은 수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관 대상 논문에서 적절한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표본의 크기가 충분한지, 효과크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효과검증을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9개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실시 수준에 맞는 통계분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설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통계분석을 실시한 논문이 3편 있었는데, 이 중 1편만이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해서 실험군오차율(family-wise error rate)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2개 논문에서는 제1종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팀에서 Bonferroni 방법을 활용하여 $p < .05$보다 엄격한 수준을 적용했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양한 준거변인을 통해 검증할 경우, 연구설계에 적합한 통계분석 단위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제1종오류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all 등(2003)의 기준을 적용해서 각 집단이 최소 15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기준을 충족시킨 연구는 6편이었고 4편은 기준에 미달하였다.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상 프로그램 실시 도중에 탈락할 확률 또한 매우 높다. 특히, 연구자가 특정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조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다수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학교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도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뒤따른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에서 표본 크기 기준에 미달된 4편의 연구 중 3편이 1개 학교 내에서 연구대상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본크기가 작을 경우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이 작고 제2종오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수검정을 사용할 경우 제1종오류를 범할 확률이 커지는데, 이 경우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rank sum test)과 같은 비모수검정을 사용하면 제1종 오류를 5% 이하로 통제할 수가 있다(강승호,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각 집단의 크기가 15명 이하인 연구 중 비모수검정을 사용해서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표본크기가 작거나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수검정보다는 비모수검정을 사용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

www.kci.go.kr

다.

한편, 개관 대상 논문에서 각 집단의 참여자는 4명에서 59명까지 분포했는데,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예를 들어, Lehr 등(2003)의 개관연구에서는 사례수가 50명 미만인 논문이 13%, 50-200명인 논문이 63%, 200명 이상인 연구가 24%로 나타났고, Prevatt와 Kelly(2003)의 개관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32명씩 참여한 경우부터 비교집단 없이 실험집단에만 1750명이 참여한 경우까지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에서 사례 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학업중단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다르고 나아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을 문제를 지닌 개인의 위기상황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또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태도, 행동에 개입해서 단기간에 변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둔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보다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업중단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단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심과 조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나아가 학업중단 문제를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학급,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 뿐 아니라 운영 방식 또한 학교 시스템, 직업훈련 시스템, 직업 공동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메릴랜드의 'FUTURE'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잠재적인 위기학생들을 선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실력 강화, 일 경험, 동기와 리더십 개발, 사회적 지지, 대학이나 직업 선택 등과 관련된 전환 서비스(transition services)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 지지자(advocate), 교사, 학교관리자, 가족, 친구 등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된다(Lever et al., 2004). 따라서 외국의 학업중단 관련 프로그램들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군의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의 사례는 학업중단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위기개입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단기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학생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소와 사회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p 값으로 대변되는 통계적 유의도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효과크기를 통해 실제적인 차이와 설명량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APA,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관한 학업중단 개입 프로그램 논문 중 효과크기를 보고한 경우는 한 편도 없었는데,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개관한 외국 선행연구(Prevatt & Kelly, 2003)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관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직접 계산하였는데, 작은 효과부터 매우 큰 효과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통계적으

www.kci.go.kr

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p<$ .001)에 효과크기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효과크기는 독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APA, 2013), 추후 학업중단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효과크기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Lewis-Snyder et al., 2002). 외국의 선행연구(Prevatt & Kelly, 2003)에서 개관한 프로그램 중 추수검사를 실시한 Pearson과 Banerji(1993)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이 첫해 10.3%에서 3년 뒤 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uriel, Rosenthal과 Richek(1986)의 연구에서는 추수검사에서 비교집단(43%)과 실험집단(23.5%) 간 학업중단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관한 국내 논문 중 사후검사 이후 추수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변화의 지속성을 확인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참여 인원이 적거나 탈락자가 발생하여 추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추수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참여자 수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참여자들을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확인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 당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추수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예, 자아·진로·대인관계·학교와 관련된 요소 등) 중에서 어떤 요소가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관련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측정도구로 측정한 후 최종 준거변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관한 논문들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논문에서 준거변인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만을 검증하거나, 각각의 구성요소를 측정했더라도 표적행동인 학업중단 변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일지라도 개별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개입의 개별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입이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Prevatt & Kelly, 2003).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개별 구성요소들을 모두 측정한 후 각각의 구성요소와 준거변인(예, 학업중단 의도, 학업중단)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어떤 구성요소가 표적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관련해서 개관 대상 논문들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개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에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Prevatt & Kelly, 2003). 미국 심리학회(APA), 교육연구학회(AERA), 교육측정자문위원회(NCME) 등에 따

www.kci.go.kr

르면,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얻은 자료가 얼마나 적합하고 의미가 있으며 유용한지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통해 알 수 있다(오수학, 김병준,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연구의 타당도 측면에서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관한 대부분의 논문에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신뢰도가 특정 개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측정하는지를 나타낸다면, 타당도는 평가도구가 사용목적에 부합한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미 있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타당도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학업중단 프로그램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함께 타당도를 보고함으로써 연구 전체의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행충실도'라는 항목을 통해 각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대로 수행되었는지,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및 과정이 상세히 보고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실행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이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프로그램이 본래 목적과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3의 평가자가 평가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을 실제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진행방식과 과정에 대해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해서 이를 연구자가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충실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관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러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의도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더욱이, 대부분의 논문에서 대략적인 매뉴얼과 수행과정 등을 기술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기 보다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재연하거나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개관 대상 논문들이 프로그램의 개입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한 외국의 선행연구(Prevatt & Kelly, 2003)와 유사하다. 추후에 학업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과 평가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개입 내용 및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또는 감소에 초점을 둔 논문들을 선별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뿐 아니라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관련 주제어를 사용해서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때 사용된 주제어가 학업중단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포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 과정에서 누락된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 등(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과 EBI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코딩 기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들을 비교,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선별, 코딩, 평가했는데, 논문에 기술된 내용이 실제로 운영된 프로그램의 내용

www.kci.go.kr

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경험적 근거 뿐 아니라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용자와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화된 프로그램 매뉴얼 제시 및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행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고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등 엄격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충분한 학업중단위기청소년 표본을 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적정한 표본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계검증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검증 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처치로 인한 것인지 성숙, 검사효과 등의 가외변인으로 초래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연구의 내적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함께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넷째, 프로그램 효과검증 시 신뢰도 뿐 아니라 타당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고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과 주체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효과크기 산출 및 보고, 효과의 지속성 확인,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확인 등을 포함한 적절한 통계분석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적 유의성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효과크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강승호 (2013). 신약개발에 필요한 의학통계학. 파주: 자유아카데미.

교육부 (2014).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21-44.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상현, 양정호 (2014).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복교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4(4), 31-60.

김신영, 정경은 (2014). 무엇이 이들의 학교복귀를 가로막고 있는가? - 학업중단 청소년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179-205.

*김은옥 (2008).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학교

www.kci.go.kr

적응력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대 (1998). 정서교육과 집단상담. 집단상담연구, 1, 77-96.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남기곤 (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3), 63-94.

*류남애 (2014).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학교상담 자용 단기개입모형의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은민, 김봉환. (2009). 가정학대 피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93-111.

박은혜 (2014).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우 (1995). 효율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제적 모형. 지도상담, 20, 19-40. 대구: 계명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변창진 (1994). 프로그램개발. 대구: 홍익출판사.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양경화 (2006).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수학, 김병준 (2002). 심리측정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검증방법.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111-126.

오현경 (2012). 청소년 학업탄력성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윤미경 (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철경, 김신영, 유성렬,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경 (2012). 놀이를 통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중단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진로결정 자아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하 (2006).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효경 (2002). 학교적응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여중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및 학습내적통제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 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20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보고서.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 2014년 청소년정책리포트, 3, 1-40.

허균 (2010). 교육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분석 실천적 접근. 고양: 서현사.

*허은하 (2003). 잠재적 중도탈락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

www.kci.go.kr

한 연구: 인지·정서·행동 모델을 적용하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홍혜영, 소수연 (2001).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87-157.

Ajzen, I. (201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Reactions and reflections. *Psychology & Health, 26*(9), 1113-112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APA 논문작성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강진령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0년 출판).

APA Publications and Communications Board Working Group on Journal Article Reporting Standards. (2008). Reporting standards for research in psychology: Why do we need them? What might they be? *The American Psychologist, 63*(9), 839-851.

Bem, D. J. (1995). Writing a review article for Psychological Bulletin. *Psychological Bulletin, 118*(2), 172-177.

Carlson, C., & Christenson, S. L. (2005). Evidence-based parent and family interventions in school psychology: Overview and procedur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0*(4), 345-351.

Coe, R. (2002). It's the effect size, stupid: What effect size is and why it is importa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University of Exeter, England.

Cohen, J. (2013).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Curiel, H., Rosenthal, J. A., & Richek, H. G. (1986). Impacts of bilingual education on secondary school grades, attendance, retentions and dropou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8*, 357-367.

Gall, M. D., Gall, J. P., & Borg, W. (2003). *Educational research*(7th ed). New York: Longman.

Gerrard, M., Gibbons, F. X., Houlihan, A. E., Stock, M. L., & Pomery, E. A. (2008). A dual-process approach to health risk decision making: The prototype willingness model. *Developmental Review, 28,* 29-61.

Kratochwill, T. R., Shernoff, E. S. (2004). Evidence-based practice: Promoting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n schoo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Review, 33*(1), 34-48.

Kratochwill, T. R., & Stoiber, K. C. (2002).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n school psychology. Conceptual foundations of the Procedural and Coding Manual of Division 16 and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Schoo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7*(4), 341-389.

Lehr, C. A., Hanson. A., Sinclair, M. F., & Christenson, S. L. (2003). Moving beyond dropout towards school completion: An integrative review of data-based interventions. *School Psychology Review, 32*(3), 342-364.

Lever, N., Sander, M. A., Lombardo, S., Randall, C., Axelrod, J., Rubenstein, M., & Weist., M. D. (2004). A Drop-out prevention program for high-risk inner-city Youth. *Behavior Modification, 28*(4), 513-527.

www.kci.go.kr

Lewis-snyder, G., Stoiber, K. C., & Kratochwill, T. R. (2002). Evidence-based intervention in school psychology: An illustration of Task Force coding criteria using group-based research desig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7*(4), 423-465.

Miller, D. N., Eckert, T. L., & Mazza, J. J (2009). Suicide prevention programs in the schools: A review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Review, 38*(2), 168-188.

Pearson, L. C., & Banerji, M. (1993). Effects of a ninth-grade dropout prevention program on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school attendance, and dropout rat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1,* 247-256.

Prevatt, F., & Kelly, F. D. (2003). Dropping out of school: A review of intervention program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 377-395.

Sternberg, R. J. (1991). Editorial. *Psychological Bulletin, 109,* 3-4.

Sussman, S. (Ed.). (2000). *Handbook of program development for health behavior research and practice.* CA: Sage Publications.

Vasquez, E., & Slocum, A. T. (2012). Evaluation of synchronous online tutoring for students at risk of reading failure. *Exceptional Children, 78*(2), 221-235.

White, J. L., & Kratochwill, T. R. (2005). Practice guidelines in school psychology: Issues and directions for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n practice and training.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2), 99-115.

* 표시된 논문은 개관 대상 논문임.

원 고 접 수 일 : 2015. 10.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2. 28.
최종게재결정일 : 2015. 12. 2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5, Vol. 12, No. 3, 407-436

A Review of Dropout Prevention Programs for Students at Risk of Dropout

Young Seok Seo **Eun Jung Lee** **Jae Hoon Kim**
Sung Hwa Park **Yuri Choi** **Jeong Yoon Choi**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rovides an integrative review of dropout prevention programs, giving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uture programs. We reviewed 11 programs developed from the year 2000 to 2014 by applying Kratochwill and Stoiber (2002)'s Evidence-Based Intervention criteria and Kim (2011)'s model for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Analyses revealed that many studies did not conduct needs analysis and consultation in developing programs. The majority provided empirical bases for their programs without giving theoretical rationale. Only one study implemented an alternative program and compared it with the treatment group. None reported effect sizes, nor did they examined whether the effects of the program sustained after the study ended. In addition, none of them reported validity information of the measures, nor did they examine the relations of program components to the criterion variables.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future dropout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 school dropout, dropout prevention programs, evidence-based interventions, review

www.kci.go.kr